

하루를 시작하며



권희진
디어마이블루 서점 대표

당신을 위한 책을 골라드립니다

책들이 줄 서서 기다리다 들어와 책을 사거나 하루 평균 매출이 몇 백만 원씩 하던 곳은 아니라서인지, 우리 서점의 경우 상대적으로 매출 하락의 폭이 크지 않은 편인데 이걸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불행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다.

한참 사태가 심각할 때는 손님이 와도 격정, 안 와도 격정인 시간을 보내며, 많은 사람의 손길이 닿지만 소독하기는 어려운 책의 특성상 계속 손님을 받는 것이 맞는 일인지 판단이 서지 않아 며칠 서점 문을 닫았다. 하지만 서점을 닫았다고 마냥 놀 수만은 없기에 생각한 것이 바로 택배 서비스였다. 동네 서점들 중에서도 일정 금액 이상이면 택배 서비스를 하는 곳들이 이미 꽤 있지만, 대형 온라인 서점의 10% 할인에 한 권이라도 무료 배송 정책을 생각했을 때 동네 서점의 택배 서비스는 크게 경쟁력이 없다는 판단에 우리는

택배 서비스를 하고 있진 않았다. 한다면 조금 달라야 했다. 그래서 시작하게 된 것이 이름하여 비빌 택배 서비스. 일반적인 주문처럼 독자가 자신이 읽을 책을 골라서 주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관심사나 자신을 드러내는 키워드 세 가지를 알려주면 내가 그에 맞는 책 두 권을 골라 추천 이유를 함께 적어 보내주는 것인데, 받았을 때 책의 표지가 바로 드러나지 않도록 예쁘게 포장을 하고 엽서와 책갈피도 사은품으로 넣었다.

반응은 가히 폭발적이었다. SNS에 올리자마자 그 날 하루만 10여 명이 주문을 신청했고, 이후 책을 받은 사람들의 반응은 더 고무적이었다. 대형 서점에서 책을 주문해서 택배를 받을 때와 달리 포장부터 정성이 가득 담겨 있으니 선물을 받는 느낌이었던 데다, 책을 펼치면 그 사람을 생각하며 고른 마음을 고스란히 담

은 손편지까지 있어 더 특별했다고 한다. 또한 어떤 책이 올지 모르니 그걸 기대하는 과정부터가 새로운 설렘이고, 평소 몰랐던 책이나 자신과는 다른 관점에서 책 추천을 해주니 독서 경험이 더 풍부해져서 좋았다고 한다. 그렇다 보니 한 번 이 서비스를 이용한 분들은 열혈 팬이 되어 자신의 지인이나 친구, 배우자 등 주변 사람들에게 선물용으로 재주문하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일시적 이벤트로 진행하려던 이 비빌 택배 서비스는 디어 마이 블루의 새로운 서비스로 자리 잡았다. 아직 현재 진행 중인 거리두기 때문에 자칫 마음의 거리까지 멀어질 수 있는 이때 꼭 맞는 서비스였다는 후기를 보며, 사람의 온기와 정성 가득한 이 서비스가 코로나 사태가 지나간 이후에도 대형 서점의 택배 서비스보다 더 사랑받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우리나라 국민 모두 미처 경험해보지 못했던 몇 달의 시간이었다. 이제는 초반의 낯설고 당황스러웠던 시간을 벗어나 이 새로운 환경에 어느 정도 적응해가는 모양새지만, 이미 많은 상점들이 큰 타격을 받았고 영세 자영업자들은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

동네 서점들도 마찬가지다. 사람들이 집에서 나오지를 못 하니 독서량이 평소보다 늘었다는 얘기도 들리나, 전자책이나 온라인 서점의 매출이 늘어났을 뿐이다. 그나마 원래도 대부분의 동네 서점이란 곳이 사

사설

소중한 '한 표의 가치' 제대로 보여주세요

드디어 선택의 날이 밝았습니다. 치열했던 13일간의 공식 선거 운동이 끝났습니다. 오늘은 국정 운영을 감시하고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날입니다. 제주지역은 3개 선거구에 모두 15명의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앞으로 4년간 대한민국과 지역의 발전을 좌우하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는 1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제주 시내 230개 투표소에서 진행됩니다. 코로나19가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유권자들은 투표할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때문에 투표소 입구에서 발열체크가 이뤄집니다. 유권자들은 발열체크를 통과한 후 손을 소독한 후 일회용 비닐장갑을 착용해 투표하게 됩니다. 발열검사에서 체온이 37.5도 이상이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유권자는 별도 임시표소에서 투표해야 합니다. 특히 참정권 제한 논란이 일었던 자가격리자도 투표에 참

여할 수 있습니다. 격리장소에서 도보 또는 차량으로 30분 이내 투표소에 도착할 수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들은 이날 오후 5시30분에서 오후 6시 사이 임시표소에서 투표하게 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어수선한 상황이지만 유권자는 반드시 투표해야 합니다. 물론 우려되는 면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정치권에 대한 실망감이 크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저질서린 막말 등을 쏟아내며서 정치 혐오만 키웠으니 말입니다. 국민의 기본권인 주권 행사마저 외면하지 않을까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족이나 이번 총선은 코로나19가 덮치면서 유래 없이 '깜깜이 선거'로 전락했습니다. 대면 선거운동이 막히면서 인물은 물론 공약과 비전을 두루 파악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웠습니다. 그렇더라도 투표를 포기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한 표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똑똑히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 장기 공백 유감

제주 문화예술을 꽃 피우고 문화 정체성을 확장해 나갈 문화예술재단 이사장 자리가 장기 공백입니다. 직전 이사장이 중도 사퇴한 이후 3개월 넘게 공석입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 공백 사태는 지역문화예술 창달의 중추 기능을 지닌 기관의 대표를 2년전에 이어 또다시 재연됐고, 올해는 공모절차후에도 재추천 요구로 장기 공백을 초래해 문화예술인들의 우려가 큼니다.

문예재단 이사장 공백은 지난 2018년 8대 박경훈 이사장이 2년 임기를 마치기 전에 제주도가 연임 여부를 확정짓지 않고 퇴임 후 차기 선임에 나서면서 두 달 정도의 공백기간 후에야 9대 고경대 이사장 취임에 맞았습니다.

올해는 이사장 중도 사퇴로 정식 공모절차 후 후보를 추천했음에도 도시사의 재추천 요구로 장기 공백 상황을 맞아 도민들을 어리둥절케 진행을 위한 실전과정 교육을 실시할 예정.

공모후 임원추천위원회에서 2명의 후보를 추천했지만 도시사가 조유의 재추천 결정을 내린 겁니다. 문화예술계가 성명을 내고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지역문화예술 이해가 전무한 측근 인사를 이사장으로 선출하려 한다"며 그것은 제주 문화예술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명백한 "반문화적 폭거"라고 반발할 만큼 파문을 컸습니다.

제주문예재단은 내년 4월 20주년을 앞두고 중·장기실천계획을 수립하는 등 올해부터 준비해야 할 과제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사장 장기 공백사태가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문예재단이 최근 새로운 임원추천위원회 위원구성 절차에 들어가 이사장 선임여부도 조만간 판가름 날 전망입니다.

새 문예재단 이사장 선임 절차가 '측근 인사' 우려를 막고, 공백 조기 해소와 재발 방지에 이어질지 기대합니다.

열린마당

동학개미운동에서 떠올린 공직자 청렴



윤홍식
제주도의회 총무담당관실

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은 이러한 공직자의 재물 소유에 대한 기본 욕구를 법이라는 제도로 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청탁금지법 시행 등의 노력으로 국가별 부패인식지수로 본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가청렴도는 세계 180개 국가 가운데 39위를 차지해 2017년 51위, 2018년 45위와 비교해 개선되고 있으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국가 중에서는 27위로 여전히 갈 길이 멀다. 특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난 3월 발표한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및 처리현황 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2016년 9월 이후 지난해 말까지 8938건의 위반 신고가 접수됐고 조사결과 1391명에 대해 수사의뢰나 과태료 부과 등 제재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나 청렴사회로 도약하기 위한 공직자의 역할을 다시금 생각해볼게 한다.

위에서 언급한 소편하우어의 말 중 생략된 부분을 되새기며, 청렴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뉴스-in

"총선 출구·예측조사 늦춰주세요"

자가격리자 투표 영향 미쳐

○...제주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가 4·15총선 출구조사 또는 예측 조사를 늦춰 달라고 요청.

도선거관리위원회는 코로나19 사태로 15일 투표마감 시각인 오후 6시 이후에도 다수 선거인의 투표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각 언론사의 출구조사 및 조사결과가 발표되는 경우 자가격리 중인 선거인의 투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오후 6시15분 이후에 공표해 달라고 당부.

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일반 유권자의 투표 종료 후에 자가격리 중인 유권자의 투표가 진행 된다"고 점언.

자가격리자 투표참여 지원

○...제주시는 4·15총선과 관련 코로나19 자가격리자에 대해서도 투표 참여가 가능해짐에 따라 1대1 전담공무원을 지정해 이동 및 투표 참여를 지원한다는 방침. 투표에 참여하는 자가격리자

관리를 위해 1대1 전담공무원이 격리장소에서 투표소까지 동행하고, 투표가 끝나면 다시 격리장소까지 동행하는 방식으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계획.

한 관계자는 "자가격리자 동선을 최소화하고 무단이탈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

코로나 딛고 공제준비 열기

○...제주대학교가 제주도 공공기관 통합공제를 앞두고 최근 재학생 74명을 대상으로 통합공제 지원 과정을 운영.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대응 차원에서 모든 교육은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는데 참가자 만족도 조사결과 93%가 만족한다고 답했고, 특히 개별 맞춤형으로 시행된 1대1 자기소개서 컨설팅이 좋은 반응.

제주대는 이달 25일엔 서류전형을 앞두고 통합공제 서류·면접 전형을 위한 실전과정 교육을 실시할 예정.

제주지방법원 판결공시
제1심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16고단2898
범역범위판
피고인 이원준
위 피고인은 범역범위반죄로 기소되었으나 증거없음을 이유로 무죄의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20. 4. 14.
판사 서근찬

방수 단열 우레탄 우레아 석주개발
712-3644, 782-3644
010-4690-3636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정보통신의 미래 >> 티엔정보기술(주)
고객을 위한 통합 SOLUTION 제공
VOICE & 영상장비 (교환대 & CCTV)
NETWORK 설비 (서버 & Network)
ONE-STOP SYSTEM
비상전원설비(UPS & AVR)
구내통신공사
열린 기술 습득, 기술인력 개발, 고객 중심 사고
티엔정보기술(주)
Telecom & Network information technology
본점 : 제주시 이도1동 1248-43번지
☎(064)722-0992, FAX (064)725-0993

그랜드보청기
경자년 보청기 파격 대할인! 보청기 전 브랜드 50~60% 대할인!!
삼촌들 흔저 전화 주십시오! 기다려주세요!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캠페인
1. 30초 동안 흐르는 물에 손씻기
2. 기침할 땐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3. 마스크 착용 생활화 하기
그랜드보청기는 고객님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NAVER [그랜드보청기]
네이버에 그랜드보청기를 검색해 주세요
☎ 064-725-9275
서사라사거리 동쪽 100m 행복방직 건너편
제주시 서광로 240-1 (2층)

건계분판매
친환경 및 HACCP인증 농장
발효기(콤포스트)로 열처리 발효시켜 완전 건조된 친환경 계분을 판매합니다.
펠렛으로도 가능합니다.
- 제주 전지역 배송가능 -
제주초록영농조합법인
문의 : 010-3693-2000, 010-2696-9876

전기차 사고 팝니다.
evworld.kr
(주)전기자동차
제주시 일주서로 7714(도두일동)
1544-8236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